

# 조선후기 고문서에 등장한 喪不着 표기의 기록문화적 의의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Sangbulchak Appearing  
in the Old Documents of Late Joseon Dynasty Era

박 성 호 (Park, Sung Ho)\*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상불착'과 조선 사회의 유교화 |
| 2. 조선시대 喪人의 문서 서명 양상   | 5. 결 론               |
| 3. 18세기 고문서에 등장한 '상불착' | <참고문헌>               |

## <초 록>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매매명문 및 분재기 등에 나타난 喪人의 署名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전기로부터 17세기까지는 상중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서에 자신의 서명을 정상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명 대신 '喪不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세기에는 전반적으로 '상불착'과 같이 상중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서명을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喪人들의 서명 기재 방식의 변화는 조선 사회의 유교화 측면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개국했지만, 조선 사회에서 주자학적 가치관과 의례가 공고히 고착된 시점은 17~18세기를 지나면서였다. 18세기 조선의 고문서에 등장한 '상불착'과 같은 기록 현상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주자학적 禮 의식이 고착되어 간 면모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要語: 조선후기, 고문서, 상인, 상불착, 유교화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ignatures of those who are in mourning written into various transaction contracts or property inheritance docu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era shows that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era until the 17th century, those in mourning gave their signature on documents the same way they would if they had not been in mourning. But starting in the 18th century,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expression 'Sangbulchak (喪不着)' was used in lieu of a signature. This was later replaced in the 19th century by a phrase stating that one could not give a signature as he is in mourning. Such changes in the way people in mourning gave their signature can be traced back to Confucian transformation taking place in Joseon society. While Confucian values were adopted as the founding philosophy of governance in Joseon, it was only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at the value system based on Jujahak and associated customs firmly took root. Phrases such as Sangbulchak being recorded in the old documents of Joseon from the 18th century are good examples that show how Confucian values were firmly incorporated into the daily customs in late Joseon society.

Key words: Late Joseon Dynasty Era, Old document, People in mourning, Sangbulchak, Confucian Transformation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조교수(travis20195@aks.ac.kr)  
투고일: 2019년 4월 24일 최초심사일: 2019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5일  
서지학연구, 제78집, 5-24,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5]

## 1. 서론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서 喪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罪人으로 지칭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물론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국법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불효이자 죄를 지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조선시대 고문서 사례에서도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罪人이나 罪民 등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노비·전답 등을 매매할 때 작성한 계약 문서인 明文이나 재산의 증여·상속 시 작성한 分財記 등의 경우 상중에 있는 사람은 타인들과 달리 문서에 자신의 署名을 기재하지 않고, 대신 ‘喪不着’ 등의 문구로 서명을 대체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표기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체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중에는 재물을 거래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왔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물건의 매매나 재물을 다루는 일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禮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 기피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상중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문자적 해석 이외에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시대 매매명문·배지·분재기 약 6천여 점을 검토하면서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喪人들이 명문이나 분재기 등의 문서 작성에 있어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의 사례를 통해 18세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서명 대신 다른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喪人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현재까지 조선후기 사회를 고찰한 연구 가운데 조선의 유교화, 『朱子家禮』의 수용과 정착 문제, 중종 또는 문종 의식의 성립 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sup>1)</sup> 이러한 연구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조선 사회가 조선전기를 지나 17~18세기를 거치면서 유교화가 강화되었고,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서 주자학적 가치관과 예 의식이 공고해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해당 현상의 변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고문서라는 당시에 작성된 개별 기록물을 통해서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시작되어 고착되어간 시점을 일일이 지목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조선시대 고문서에 ‘상불착’ 등의 문구가 서명 대신 등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를 경과하면서 고착되어간 주자학적 예 의식의 일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시대 고문서에 나타난 喪人들의 서명 양상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기록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 서명을 통해 나타난 문서 작성의 관행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문서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상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명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선시대 문서에 나타난 상인들의 서명 방식의 변화 양상을 조선후기 유교적 예 의식의 고착 과정과 연계하여 그 기록문화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의 유교화, 『주자가례』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4장에서 언급하는 논저 참고.

## 2. 조선시대 喪人의 문서 서명 양상

고려 및 조선시대 고문서에는 몇 가지 유형의 서명이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쓰였다. 이러한 서명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시대에서도 확인되는 동아시아 기록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서명을 크게 자신의 이름에 포함된 글자를 활용한 着名, 이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상징 문구(一心, 一宜 등)를 활용한 着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착명은 자신을 낮추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경우에 사용하였고, 착압은 상위의 입장에서 하위의 상대를 대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착명과 착압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아주 정중한 태도를 표시할 때였다.<sup>2)</sup> 물론 문자로 서명을 표기하지 못한 계층에서는 손마디(手寸)나 손바닥 모양(手掌)을 그려서 서명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양반가의 부인들은 인장으로 서명을 대신하였다.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에 한정하여 현존하는 고문서에 보이는 喪人들의 서명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물 검토에 앞서 19세기에 편찬된 『儒胥必知』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서필지』에는 조선시대 상인의 문서 서명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夫家家舍牌旨  
牌旨(內始面云奴名某處)  
無他 宅以移買次 某部某坊某契伏在瓦家幾間廳乙 空垞并 願買人處 捧準價 永永放賣爲去乎 此牌旨導良  
成文以給事 年 月 日  
上典 姓 押(喪人以套書代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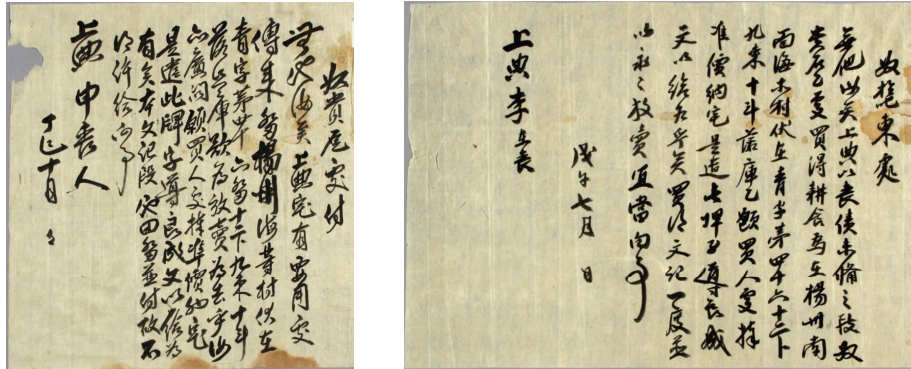
<자료 1> 『儒胥必知』 文券規式, (士)夫家家舍牌旨

위 『유서필지』의 패지(‘배지’ 또는 ‘배자’로 발음)<sup>3)</sup> 서식을 설명한 부분에서 마지막 줄에 기술된 “上典 姓 押(喪人以套書代押)”이 바로 상인의 서명에 관한 설명을 기술해 놓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上典”이라고 적고, 아래에 상전의 ‘姓’을 적은 다음 그 아래에 ‘押’을 한다(상인의 경우는 투식어를 써넣음으로써 압을 대신한다.<sup>4)</sup>)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자료 2>와 같이 조선후기 문서에 적용되고 있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서울: 박이정, 2016), 304-311.

3) 박성호, “고문서 牌子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 15(2009. 12), 295-330.

4)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유서필지』에서는 이 주석 부분을 “상인은 ‘상불착’이라는 문구를 써서 압을 대신한다.”고 번역하였다(전경록 외,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유서필지』 (서울: 사계절, 2006), 276).



<자료 2> 1797년 노 귀들처 배지(왼쪽) 및 1798년 노 엇동처 배지(오른쪽)<sup>5)</sup>

위 <자료 2> 가운데 왼쪽 문서에는 “上典 申 喪人”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문서에는 “上典 李 在喪”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를 발급해 준 상전은 喪中이라는 특수 상황에 있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상전이 배지를 작성하던 방식대로 着押의 방식으로 서명을 했어야 하지만,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押을 표기하는 대신 상중임을 밝히는 문구인 ‘상인’ 또는 ‘재상’이라는 문구를 써놓았다.<sup>6)</sup>

다음으로 『유서필지』에 소개된 배지의 사례 외에 매매명문과 분재기에 보이는 상인의 서명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  |                                                                                                       |
|--|-------------------------------------------------------------------------------------------------------|
|  | <p>雍正十一年癸丑八月十六日兄嫂李氏前明文<br/>右明文事段 …(中略)… 用此文下正事</p> <p>田主 及第 李之聘 <b>[喪不着]</b><br/>筆 甥姪 幼學 朴精一 [着名]</p> |
|--|-------------------------------------------------------------------------------------------------------|

<자료 3> 1733년 토지매매명문<sup>7)</sup>

위 문서는 1733년(영조 9) 8월 16일에 발주인 李之聘이 흉년으로 인해 자신의 밭을 형수 이씨(이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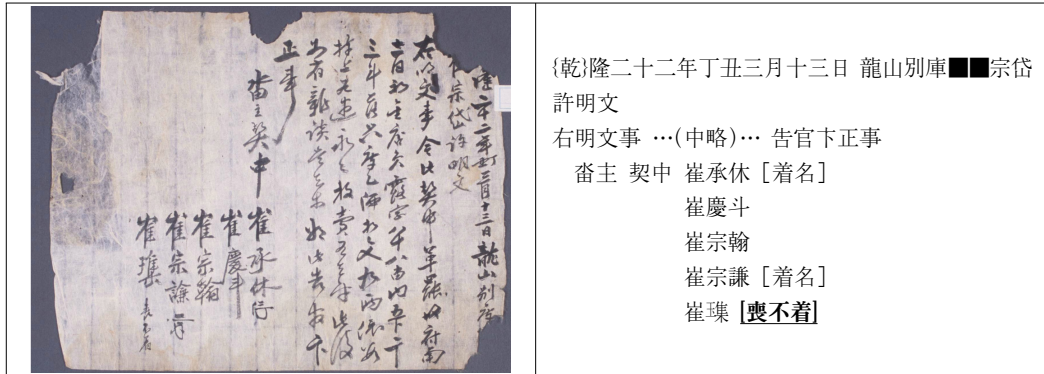
5) 『古文書集成 55 - 제천 한수 연안이씨편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이하 본문의 고문서 이미지는 모두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임.

6) 박준호,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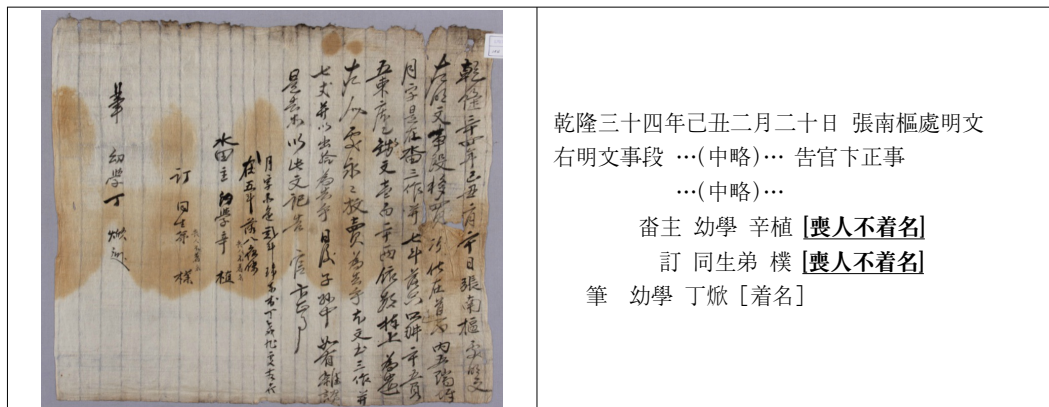
7) 『古文書集成 65 -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의 처 성산이씨)에게 팔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의 끝부분을 보면 이지담은 ‘喪不着’이라고만 적고 서명을 하지 않았고, 필집인 박정일은 착명을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상불착’은 조선시대 고문서 가운데 상중에 있었던 인물들이 자신의 서명 대신 기재했던 문구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자료 4> 1757년 토지매매명문<sup>8)</sup>

위 문서는 1757년(영조 33) 3월 13일에 契中 인원이었던 최승휴, 최경두, 최종한, 최종겸, 최집 5인이 공동으로 계중 소유의 논을 용산서원에 팔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문서의 말미에 5인 가운데 최승휴와 최종겸은 착명을 하였고, 최경두와 최종한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보이는 최집은 ‘상불착’이라고 적었다. 경주에 세거한 같은 경주최씨 종중 사람들이었지만, 상중에 있었던 최집만 서명 대신 ‘상불착’이라고 적었다.



<자료 5> 1769년 토지매매명문<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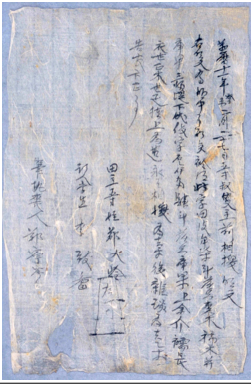
위 문서는 1769년(영조 45) 2월 20일에 논주인 신식이 자신의 논을 장남추에게 팔면서 작성한

8) 『古文書集成 50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용산서원편(Ⅰ)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9) 『古文書集成 27 - 영광 영월신씨편(Ⅰ)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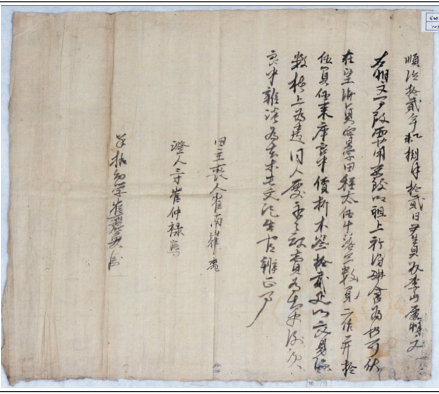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논주인 신식과 증인으로 참여한 아우 신박이 각자 자신의 착명 대신 ‘喪人不著名(상인이므로 착명을 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았다. 이와 같이 ‘상불착’ 외에도 ‘罪人不著名’, ‘罪不着’ 등의 표현도 조선후기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사례와는 달리 문서의 맥락상 매매나 분재 당시 상중에 있었던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사례들도 확인된다.

|                                                                                    |                                                                                                                      |
|------------------------------------------------------------------------------------|----------------------------------------------------------------------------------------------------------------------|
|  | <p>萬曆十一年癸未二月二十七日 五寸叔叟主前相換明文<br/>右明文爲臥乎事段 …(中略)… 告官卞正事</p> <p>田主 五寸姪 鄭大崙 [左寸]<br/>訂人 學生 李致 [着名]<br/>筆執 喪人 鄭寧 [着名]</p> |
|------------------------------------------------------------------------------------|----------------------------------------------------------------------------------------------------------------------|

<자료 6> 1583년 토지상환명문<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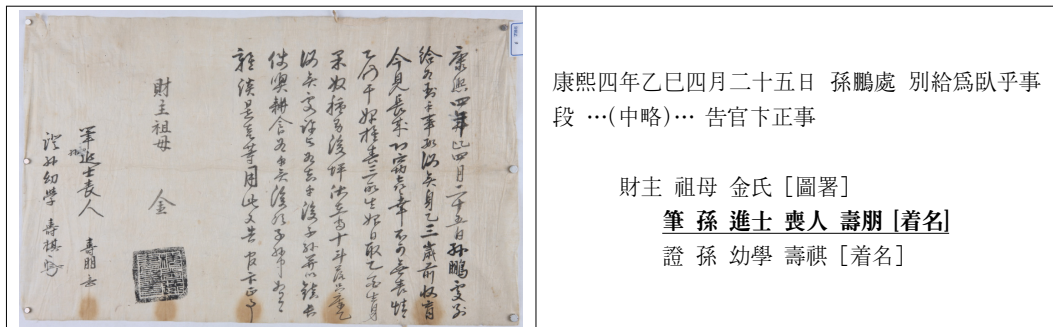
위 문서는 1583년(선조 16) 밭주인 정대령이 자신의 밭을 오촌 아주머니와 맞바꿀 때 작성한 명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행에 보이는 필집 정녕이 喪人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구를 적지 않은 채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점이다. 친족끼리의 매매에 상중에 있던 정녕이 필집으로 참여했고, 상중임에도 착명을 하였다. 경주의 경주손씨 종가에 남아 있는 1580년(선조 13)의 문서에서도 정녕의 착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문서에 기재된 착명과 동일하다.

|                                                                                     |                                                                                                                     |
|-------------------------------------------------------------------------------------|---------------------------------------------------------------------------------------------------------------------|
|  | <p>順治貳拾年乙未捌月拾貳日 尹生員奴李山處明文<br/>右明文事段 …(中略)… 此文記告官辦正事</p> <p>田主 喪人 崔南嶽 [着名]<br/>證人 三寸 崔仲祿 [着名]<br/>筆執 幼學 崔麗夏 [着名]</p> |
|-------------------------------------------------------------------------------------|---------------------------------------------------------------------------------------------------------------------|

<자료 7> 1655년 토지매매명문<sup>11)</sup>

10) 『古文書集成 32 - 경주 경주손씨편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위 문서는 1655년(효종 6)에 발주인 崔南崔이 윤생원댁 奴 李山에게 발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앞의 <자료 6>은 상중에 있는 필집이 착명을 기재한 사례였다면, 이 문서는 발을 파는 당사자가 상중에 매매 문서에 착명을 한 사례이다. 시기적으로 <자료 6>은 임진왜란 이전이고, <자료 7>은 임진왜란을 경과한 지 50년 이상 지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 나타난 ‘상불착’, ‘상인불착명’ 등과 같은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자료 8> 1665년 분재기(별급)<sup>12)</sup>

위 <자료 8>은 1665년(현종 6) 財主 조모 권상경 처 순천김씨가 집안의 장손자 權鵬에게 노비와 토지를 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여기서도 필집으로 참여한 손자 權壽朋이 喪人이라고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착명을 하였다. 매매명문뿐만 아니라 분재기에서도 상중에 별도의 표기 없이 서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필집 권수봉과 증인 권수기는 같은 아버지(權鏐) 소생이지만, 권수봉이 양자로 나가게 됨으로써 이 문서에서는 양부의 상을 당한 권수봉만 자신을 상인으로 표기했고, 권수기는 유학이라고만 적었다. 여기서도 역시 권수봉은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한 점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배지, 명문, 분재기 등에 나타난 喪人의 서명 양상을 대략 살펴보았다. 현재 조선시대 고문서에 대한 여러 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중에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상불착’ 등의 표기를 기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자료 6> 이하의 문서들처럼 상인 신분으로 문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원칙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인식은 ‘상불착’이라는 특정 시기 이후에 등장한 표기 현상을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 일관되어 온 현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상불착’이라는 표기를 통해 喪人의 서명을 대신한 현상이 조선시대 내내 지속된 일관된 현상이었는지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자.

11) 『古文書集成 3 - 해남윤씨편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고문서(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교택).

13) 한국고문서자료관을 비롯한 개별 고문서 해제 및 요약에서 대부분 이러한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 18세기 고문서에 등장한 ‘상불착’

우선 조선시대 喪人이 고문서에 서명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검토 대상의 조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검토 대상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古文書集成』<sup>14)</sup>에 수록된 자료와 한국학자료포털<sup>15)</sup>에 집적된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이 가운데 문서의 종류는 매매명문, 분재기, 배지, 수기(수표)로 한정한다.<sup>16)</sup> 양적인 측면에서 『고문서집성』과 한국학자료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매명문, 분재기, 배지, 수표 등은 약 6천여 점에 달하고, 시기적으로도 조선전기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실물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일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위와 같이 검토 대상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문서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喪人임을 표기한 경우나 ‘喪不着’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조건을 토대로 15세기로부터 19세기 사이에 작성된 고문서에 나타난 상인의 서명 실태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문서에 나타난 喪人의 서명 실태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1  | 1447-50 | 분재기(화회) | 長子 故務功郎守中部令柳敬孫子 喪人 柳蓋沂 | 착명+착압          | 안동 수곡 전주류씨  |
| 2  | 1496    | 분재기(화회) | 喪人 權                   | 착명+착압          | 남양주 사릉 해주정씨 |
| 3  | 1498    | 가사매매명문  | 證 次子 喪人 柳茂             | 착명+착압          | 안동 가곡 안동권씨  |
| 4  | 1519    | 분재기(화회) | 筆執 弟 喪人 河              | 착명+착압          | 안동 송파 진주하씨  |
| 5  | 1536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李                | 착명+착압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6  | 1536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前參奉 喪人 李         | 착명+착압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7  | 1547    | 토지매매명문  | 畓主 正兵 喪人 李班            | 좌촌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8  | 1553    | 분재기     | 筆執 家翁 同生弟 喪人 金         | 착명+착압          | 칠곡 석전 광주이씨  |
| 9  | 1565    | 토지매매명문  | 證 妻同生甥 喪人 李俊鶴          | (없음)           | 안동 천진 의성김씨  |
| 10 | 1569    | 분재기     | 證 外孫 喪人 學生 李進忠         | 착명             | 남양주 사릉 해주정씨 |
| 11 | 1583    | 토지매매명문  | 筆執 喪人 鄭寧               | 착명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12 | 1588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喪人 正兵 夫李千        | 착명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13 | 1614    | 분재기(화회) | 一男 喪人 黃大猷<br>二男 喪人 黃大受 | 착명+착압<br>착명+착압 | 강화·부여 창원황씨  |
| 14 | 1619    | 분재기(화회) | 四男 前監察 申粹一 子 筆執 喪人 申愼  | 착명             | 남양주 사릉 해주정씨 |
| 15 | 1619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金水生              | 착명+착압          | 영해 도곡 무안박씨  |

14) 『古文書集成』 1~12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2018).

15) 한국학자료포털(<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상인이 작성한 문서 가운데는 부고를 비롯한 서간류의 문서도 있지만, 이 문서들은 본고에서처럼 상인의 서명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선후기 고문서에 등장한 喪不着 표기의 기록문화적 의의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16 | 1640 | 토지상환명문         | 田主 同姓三寸姪 故從仕郎 趙裕遠 妻 喪人 金氏     | <b>圖書(인장)</b>  | 상주 낙동 풍양조씨  |
| 17 | 1641 | 토지매매명문         | 筆執 喪人 鄭爾明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8 | 1655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崔南嶺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9 | 1665 | <b>분재기</b>     | 筆 孫 進士 喪人 壽朋                  | 작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20 | 1666 | <b>분재기</b>     | 財主 自筆 表叔 喪人 趙景望 證人 表仲叔 喪人 趙景昌 | 작명<br>작명       | 나주 회진 나주임씨  |
| 21 | 1669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喪人 尹善慶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22 | 1673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喪人 尹曼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23 | 1682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林必榮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24 | 1696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幼學 金宗赫 自筆 喪人 郭季泰           | 작명<br>(없음)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25 | 1698 | 토지매매명문         | 筆執 喪人 金萬春                     | 작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26 | 1699 | <b>분재기(화회)</b> | 筆執 外孫 喪人 尹光協                  | 작명             | 남양주 사곡 해주정씨 |
| 27 | 1703 | 토지매매명문         | 證 喪人 金寶興                      | <b>喪不着</b>     | 용인 오산 해주오씨  |
| 28 | 1703 | 토지매매명문         | 證 喪人 金寶興                      | <b>喪不着</b>     | 용인 오산 해주오씨  |
| 29 | 1709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喪人 權重賢                  | 작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30 | 1731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金鶴只                     | 작명             | 서산 대교 경주김씨  |
| 31 | 1732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幼學 喪人 朴汀                   | 작명             | 안동 화회 풍산류씨  |
| 32 | 1733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及第 李之聯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33 | 1733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金德曄 金德昇                 | 작명<br>작명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34 | 1734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金元采                     | 작명             | 부안 석동 전주최씨  |
| 35 | 1755 | <b>배지</b>      | 上典 喪人 田                       | 작압             | 아산 선교 장흥임씨  |
| 36 | 1756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張察官 證人 喪人 安次杰           | 작명<br>작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37 | 1757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契中 崔王集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38 | 1758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喪人 金克來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39 | 1758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喪人 金大玉 證人 同生弟 喪人 金崑玉    | 喪人<br>喪人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40 | 1759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幼學 李行敏                  | 喪人故不得署耳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41 | 1762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畝主 喪人 趙夢見                  | 작명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42 | 1769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金應鉉                     | 작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
| 43 | 1769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兪漢東                     | 작명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44 | 1769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幼學 辛植 證 同生弟 樸              | 喪人不着名<br>喪人不着名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45 | 1770 | 토지매매명문         | 畝主 <b>喪主</b> 田論所多只            | (작명)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46 | 1770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畝主 喪人 李應大                  | 不着             | 경주 이조 경주이씨  |
| 47 | 1772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金光礪                     | 喪人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48 | 1773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金成才                     | 작명             | 서산 대교 경주김씨  |
| 49 | 1774 | 토지매매명문         | 田主 梁連夏                        | 喪人不着           | 제주 어도 진주강씨  |
| 50 | 1774 | 토지매매명문         | 筆執 子 姜時輔                      | 喪不着            | 제주 어도 진주강씨  |
| 51 | 1775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金良運                     | 喪人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52 | 1777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金福連                     | 不着             | 경주 이조 경주이씨  |
| 53 | 1778 | 토지매매명문         | 畝主 自筆 同姓六寸兒 喪人 斗賢             | (없음)           | 남원·구례 삭녕최씨  |
| 54 | 1779 | 토지매매명문         | 畝主 喪人 南大悅                     | 喪不(着)          | 영해 인량 재령이씨  |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55 | 177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李奉太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56 | 1780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李國樑                     | 喪不署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57 | 178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同姓 喪人 李宗守<br>證筆 同生弟 喪人 李宗春 | 喪不着<br>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58 | 1782 | 토지매매명문     | 筆 幼學 李謙範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59 | 178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朴文寧                     | 착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60 | 178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文德燾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61 | 1785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張重泰                     | 착명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62 | 1786 | 노비매매명문     | 宗孫 朴漢大                        | 喪不着        | 영해 도곡 무안박씨 |
| 63 | 1786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田主 生貝 族侄 星白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64 | 1787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朴美得<br>證筆 同生兄 喪人 朴次得    | 착명<br>착명   | 예천 감천 강릉유씨 |
| 65 | 1787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田主 幼學 孫星福                  | 喪不着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66 | 1787 | 토지매매명문     | 家垵主 自筆 金之瑚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67 | 1787 | 토지매매명문     | 家垵主 自筆 金之珏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68 | 178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李東龜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69 | 1788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孫烈九                     | 喪不着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70 | 1788 | 토지매매명문     | 畚田主 喪人 柳                      | 착명         | 안동 하회 풍산류씨 |
| 71 | 1789 | <b>분재기</b> | 財主 父 自筆                       | 在喪不着署      | 칠곡 석전 광주이씨 |
| 72 | 178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朴南奎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73 | 178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鄭澤興                     | 喪人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74 | 1790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李得采                     | 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75 | 1790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朴泰龍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76 | 1791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田畚主 幼學 趙宗得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77 | 179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族侄 禪服人 國弼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78 | 1791 | 토지매매명문     | 筆執 趙雲翼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79 | 1792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朴宗宋                        | 在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80 | 1792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學 辛永鎭<br>證筆 舍兄 辛永燮        | 喪不着<br>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81 | 1793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權慶彦                     | 착명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82 | 1793 | 시장매매명문     | 柴場主 自筆 徐彭石                    | 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83 | 1794 | 가사매매명문     | 家主 崔漢                         | 喪不着        | 대구 칠계 경주최씨 |
| 84 | 179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具萬郁                        | 罪人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85 | 179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安性彦                  | 착명         | 보성 태촌 죽산안씨 |
| 86 | 179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千明華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87 | 179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琴象熙                     | (없음)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88 | 179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劉龜周                  | <b>착명</b>  | 예천 감천 강릉유씨 |
| 89 | 1797 | 배지         | 上典 申                          | 喪人         | 제천 한수 연안이씨 |
| 90 | 1798 | 배지         | 上典 李                          | 在喪         | 제천 한수 연안이씨 |
| 91 | 1799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幼學 金是瑛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92 | 1799 | 토지매매명문     | 證人 喪主 月贊                      | 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93 | 179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宗人 朴鳳國                  | 喪不着        | 용연서원       |
| 94 | 179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田斗三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95 | 180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幼學 李時白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96 | 1801 | 토지매매명문     | 稷有司 金龍頤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97 | 1801 | 가사매매명문     | 家垵主 同姓 喪人 達洙                  | 喪不着        | 해남 노송 김해김씨 |

조선 후기 고문서에 등장한 喪不着 표기의 기록문화적 의의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98  | 1809 | 노비자매명문           | 自賣主 喪人 鄭福三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99  | 1810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族叔 辛重德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00 | 181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宗孫 幼學 權秉直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01 | 1813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金用憲               | 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02 | 1816 | 토지매매명문           | 陳田主 徐鳳起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03 | 181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李辰伯               | (없음)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04 | 1816 | 가사매매명문           | 家垡主 李鑣白<br>證筆 朴龍哲       | 喪不着<br>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05 | 1817 | 토지매매명문           | 筆 朴碩良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06 | 181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閔致德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07 | 181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崔洵                   | 喪不着        | 대구 칠계 경주최씨 |
| 108 | 1821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鄭能濟               | 喪不着        | 안동 금계 의성김씨 |
| 109 | 182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幼學 李周采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110 | 1822 | <b>분재기</b>       | 財主 母 鄭氏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111 | 1822 | <b>(묘 이장) 수표</b> | 喪主 自筆 李在善               | 喪不着        | 경주 양동 경주손씨 |
| 112 | 1823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尹成殷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13 | 182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童蒙 孫啓俊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14 | 182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崔鳴澤            | (없음)       | 남원·구례 삭령최씨 |
| 115 | 1827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喪人 柳英春            | 喪不着        | 안동 범흥 고성이씨 |
| 116 | 1828 | <b>(묘 이장) 수기</b> | 手記主 喪人 鄭錫奎              | 喪人         | 부안 청호 제주고씨 |
| 117 | 1830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吳廷獐            | 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18 | 183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申大幸                  | 喪不着        | 영해 도곡 무안박씨 |
| 119 | 183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吳道一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20 | 183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吳在郁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21 | 1833 | 토지매매명문           | 證筆 幼學 劉基一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22 | 1833 | 토지매매명문           | 證 幼學 吳鑣相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23 | 1833 | 토지매매명문           | 門長 辛桂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24 | 1834 | 산지매매명문           | 山主 鄭錫熙<br>證人 孫孝根        | 喪不着<br>喪不着 | 안동 범흥 고성이씨 |
| 125 | 183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徐正回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26 | 1834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喪人 趙亨復            | 不着         | 영양 삼지 한양조씨 |
| 127 | 1835 | <b>분재기</b>       | 財主 母 丁氏<br>證 長女壻 幼學 曹秉淵 | 喪不着<br>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128 | 1835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從侄 廷鑣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29 | 183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族叔 金冕教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130 | 183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筆 幼學 辛永燮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31 | 1836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卓興濂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32 | 1836 | 토지매매명문           | 證筆 金                    | 喪不着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133 | 1836 | 토지매매명문           | 移建都廳 權燦模                | 喪不着        | 예천 저곡 안동권씨 |
| 134 | 1837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崔錫升            | (없음)       | 남원·구례 삭녕최씨 |
| 135 | 1837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學 朴春慶               | 喪不着        | 밀양 신희 밀양박씨 |
| 136 | 1843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幼學 吳晉圭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37 | 1845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朴再蓆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38 | 184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學 金志泓               | 喪不着        | 밀양 신희 밀양박씨 |
| 139 | 184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卓月岩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40 | 1847 | 토지매매명문           | 證 喪人 李潤宇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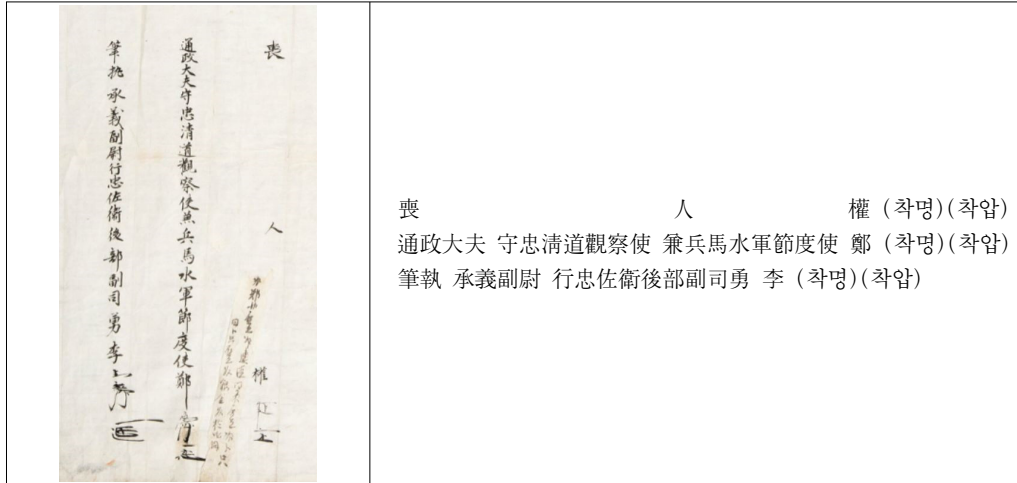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141 | 184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族侄 民新          | 喪不着        | 용연서원       |
| 142 | 184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吳進哲               | 喪不着        | 보성 박씨 제주양씨 |
| 143 | 185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安時宗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144 | 1853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喪人 柳道天         | 不着         | 남원·구례 삭녕최씨 |
| 145 | 1854 | 산지매매명문   | 山主 宗孫 喪人 鄭周弼         | 착명         | 상주 우산 진주정씨 |
| 146 | 1857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族孫 朴時源         | 喪不着        | 용연서원       |
| 147 | 1857 | 토지매매명문   | ■ ■ 自筆 喪人 河千溶        | 不着         | 남원·구례 삭녕최씨 |
| 148 | 1859 | 토지매매명문   | 芻田主 金柄喜              | 喪不着        | 부안 우반 부안김씨 |
| 149 | 1859 | 토지매매명문   | 證人 李基穆               | 喪不着        | 보성 박씨 제주양씨 |
| 150 | 185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奴 鄭丁芑             | 喪不着        | 영양 삼지 한양조씨 |
| 151 | 1860 | 토지매매명문   | ■主 自筆 幼學 金璧鉉         | 喪不着        | 안동 하회 풍산류씨 |
| 152 | 186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權永根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53 | 1862 | 토지매매명문   | 田主 金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154 | 1863 | 토지매매명문   | 田主 喪人 任潤鉉            | 不着         | 보성 박씨 제주양씨 |
| 155 | 186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權生員奴尙卜         | 喪不着        | 영해 인랑 재령이씨 |
| 156 | 1864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喪人 柳景原            | 喪不着        | 용연서원       |
| 157 | 1866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學 梁學魯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58 | 186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趙召史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59 | 186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池應孫               | 喪不着        | 안동 의인 진성이씨 |
| 160 | 186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金濟德            | 喪不着        | 안동 주진 전주류씨 |
| 161 | 1870 | 가사매매명문   | 證筆 喪 丁錫基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62 | 1870 | 가사토지매매명문 | 家畚主 幼學 南正夏           | 喪不着        | 영해 인랑 재령이씨 |
| 163 | 1870 | 토지매매명문   | 證人 崔日玉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64 | 1871 | 가사시장매매명문 | 家垞柴場主 童蒙 庾邦甲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65 | 187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崔奴自月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166 | 1871 | 토지매매명문   | 田主 鄭爲宗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167 | 1871 | 토지매매명문   | 畚主 金基俊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168 | 1876 | 토지매매명문   | 證筆 喪制 曹桂承            | 喪不着        | 익산 마동 창녕조씨 |
| 169 | 1876 | 토지매매명문   | 田畚主 舍兄 鄭祥基           | 喪不着        | 상주 낙동 풍양조씨 |
| 170 | 1876 | 토지매매명문   | 證人 自筆 幼學 柳昌奎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171 | 1877 | 토지매매명문   | 田主 自筆 溪上宅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72 | 1877 | 토지매매명문   | 畚主 自筆 宗孫 幼學 權秉直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73 | 1877 | 토지매매명문   | 證人 金恨益               | 喪不着        | 안동 주진 전주류씨 |
| 174 | 1877 | 토지매매명문   | 證參 朴慶石               | 喪不着        | 경주 소정 경주이씨 |
| 175 | 1877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文星 李今亨            | 喪不着        | 경주 옥산 여주이씨 |
| 176 | 187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金萬一<br>證人 李萬守     | 喪不着<br>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77 | 187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 金章弼<br>證筆 幼 李鐘國 | 喪不着<br>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78 | 187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元浩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79 | 187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幼學 金善淑            | 喪不着        | 보성 박씨 제주양씨 |
| 180 | 1878 | 토지매매명문   | 畚主 尹株範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81 | 1879 | 토지매매명문   | 證人 幼學 喪人 王洛瑞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182 | 1879 | 토지매매명문   | 畚主 童蒙 金石勳            | 喪不着        | 해남 연동 해남윤씨 |
| 183 | 1880 | 토지매매명문   | 畚主 李沃伊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84 | 1881 | 토지매매명문   | 筆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조선 후기 고문서에 등장한 喪不着 표기의 기록문화적 의의

| 연번  | 발급연도 | 문서 종류  | 상인 표기                 | 서명 방식      | 원 소장처      |
|-----|------|--------|-----------------------|------------|------------|
| 185 | 1881 | 토지매매명문 | 畓主 朴奴 禮丹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186 | 1881 | 토지매매명문 | 畓主 承重 喪人 朱光奎          | 喪不着        | 안동 천전 의성김씨 |
| 187 | 1882 | 토지매매명문 | 田畓主 金尹谷宅 自筆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88 | 1882 | 토지매매명문 | 畓主 高濟浩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189 | 1883 | 가대매매명문 | 家垵主 幼學 金鍾來            | 喪不着        | 보성 박실 제주양씨 |
| 190 | 1883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幼學 金洪健<br>筆執 弟 金聲健 | 喪不着<br>喪不着 | 경주 소정 경주이씨 |
| 191 | 1883 | 토지매매명문 | 自筆 田主 幼學 韓奉俊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192 | 1884 | 토지매매명문 | 畓主 金奴 日德              | 喪不着        | 봉화 명호 안동김씨 |
| 193 | 1885 | 토지매매명문 | 田畓主 族孫 翰雲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94 | 1887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幼 庚載洪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95 | 1888 | 시장매매명문 | 證人 喪弟 鄭錫衍             | 喪不着        | 영광 입석 영월신씨 |
| 196 | 1888 | 토지매매명문 | 筆 幼學 李                | 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197 | 1888 | 토지매매명문 | 田主 金奴德碩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198 | 1889 | 토지매매명문 | 浦田主 金孺會               | 喪不着        | 상주 낙동 풍양조씨 |
| 199 | 1890 | 토지매매명문 | 田主 李壽洞                | 喪不着        | 안동 주촌 진성이씨 |
| 200 | 1891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崔奴吳石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201 | 1892 | 토지매매명문 | 畓主 自筆 李               | 喪不着        | 안동 주진 전주류씨 |
| 202 | 1893 | 토지매매명문 | 畓主 金奴 白悅              | 喪不着        | 안동 주진 전주류씨 |
| 203 | 1893 | 토지매매명문 | 證人 李仁大                | 喪不着        | 상주 낙동 풍양조씨 |
| 204 | 1893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崔奴吳石               | 喪不着        | 경주 이조 경주최씨 |
| 205 | 1893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幼學 國彥              | 喪不着        | 남원·구례 삭녕최씨 |
| 206 | 1895 | 토지매매명문 | 筆 金石圭                 | 喪不着        | 봉화 명호 안동김씨 |
| 207 | 1895 | 토지매매명문 | 畓主 李奴 甲芑              | 喪不着        | 안동 주진 전주류씨 |
| 208 | 1895 | 토지매매명문 | 田畓主 幼學 張文國            | 喪不着        | 구례 오미 문화유씨 |
| 209 | 1897 | 토지매매명문 | 畓主 金魯成                | 喪不着        | 예안 오천 광산김씨 |
| 210 | 1898 | 토지매매명문 | 畓主 喪人 諸日萬             | 喪不着        | 보성 박실 제주양씨 |
| 211 | 1899 | 토지매매명문 | 畓主 銀玉                 | 喪不着        | 영해 인량 재령이씨 |

위 표에 제시된 문서는 총 211이다. 전체 약 6천여 점의 검토 대상 자료 가운데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문서 작성 관계자가 상중에 있었던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상과 같다. 시기적으로 1447년(세종 29)으로부터 1899년(광무 3) 사이에 분포한다. 문서 종류별로는 매매명문 193점, 분채기 13점, 배지 3점, 수기 및 수표 2점으로 나눌 수 있다.

위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15~16세기 문서의 사례는 총 12점이고, 그 가운데 착명만 한 사례(3점), 착명과 착압을 함께 한 사례(7점), 좌촌을 한 사례(1점), 서명을 하지 않은 사례(1점)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15~16세기 매매명문과 분채기 등은 모두 600여 점이었고, 그 가운데 喪人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사례는 12점이었다. 물론 조선시대 사람들이 문서 작성 시 반드시 자신이 상중임을 표기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중에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경우에 한해서는 위와 같은 서명 기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15~16세기 문서 가운데 자신이 상인임을 표기한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않은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착명, 착명+착압, 수촌 형태의 서명을 기재했다.



<자료 9> 1496년 정역 처 권씨 형제 분재기(화회) - 서명 기재 부분<sup>17)</sup>

이어서 17~19세기 문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1703년(숙종 29)에 작성된 문서 2점에서 처음으로 ‘상불착’이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이때 이후로는 착명을 한 문서와 ‘상불착’ 등의 문구를 기재한 문서가 한동안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집안이나 지역에 따라 ‘상불착’과 같은 문구를 일찍 적용한 경우와 기존의 관행대로 서명을 유지한 경우가 한동안 공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고문서의 전래 상황에 따른 한계는 있지만, 18세기에 ‘상불착’과 같은 문구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역은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등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서명을 한 경우와 서명 대신 다른 문구를 기재한 경우가 함께 나타나다가 1796년(정조 20) 문서를 하한으로 상인이 서명을 한 사례는 1854년(철종 5)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19세기 문서에서는 ‘상불착’, ‘상인’, ‘불착’, ‘죄불착’ 등과 같이 상중에 있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표기를 한 사례가 지배적이다.

요컨대, <표 1>을 통해서도 조선시대 喪人들이 조선전기로부터 17세기까지는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작성할 때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서명을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인들이 서명 대신 ‘상불착’ 등의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고,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동안 서서히 확산되다가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매매나 분재 등에 관계된 문서에 상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착되었다.

17) 『古文書集成 122 - 양주 사릉 해주정씨종가 고문서 -』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4. ‘상불착’과 조선 사회의 유교화

이상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중에 서명 대신 ‘상불착’ 등의 표기를 기재하게 된 것이 18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문서에 자신이 상중에 있다는 표기를 한 것은 조선전기로부터 지속되었는데, 유독 매매나 분재 문서 등에 나타난 서명 방식의 변화는 18세기에 이르러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 또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조선후기 고문서에 등장한 이러한 변화 현상을 조선 사회의 유교화 과정, 조선후기에 강화된 주자학적 禮 의식의 고착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선 사회의 유교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고려 사회와는 달리 조선 사회는 주자학 기반의 유교적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조선왕조가 지속되면서 유교적 가치관과 『주자가례』 등이 민간 사회에 깊숙이 확산되어 조선후기 사회는 고려 및 조선전기와는 여러 측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다.

마르티나 도히힐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략 17세기 조선후기 사회는 고려 후기 사회와는 뚜렷이 달랐고, 그러한 차이는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중기까지 발생한 사회 변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 변동의 주 원동력은 바로 신유학(정주학)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중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유교화 과정(the confucian transformation)”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 사회에서 유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종법, 제사, 상속, 예학, 상장례, 여성의 지위 등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sup>18)</sup>

16~17세기는 조선 사회에서 부계 중심의 족계, 문중(종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문중의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안동 진성이씨 경우 16세기 말에 족계가 형성되었고 17세기를 지나면서 묘소나 제사 운영 등에 있어 문중 운영에 변화가 진행된 사실이 자세히 밝혀졌다.<sup>19)</sup> 다만, 조선 사회 전반에서 양반 가문을 중심으로 한 족계나 종계의 출현 및 확립은 18세기 초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현재 확인되는 족계나 종계 관련 節目과 座目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자료들 대부분이 18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18세기에 확산되기 시작한 부계 중심의 문중 조직을 통해 선영 수호, 제사 봉행, 족보 편찬 등의 문중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sup>20)</sup>

18)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Harvard Press, 1992. ; 마르티나 도히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 너머북스, 2013).

19) 김문택, “16~17C 安東 眞城李氏家の 族契와 門中조직의 형성과정,” 『고문서연구』 32(2005. 3), 5-38.

20)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승모,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 방식,” 『역사민속학』 23 (2006. 12). ; 김필동,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노종파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2009. 7). ; 백옥경, “朝鮮 後期 牛峯金氏 가문의 門中形成과 宗契 - 繼全公派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이와 같이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족 의식의 강화와 구체적인 결사체의 형성 등도 조선후기에 본격화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주자가례』의 적용이 1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공고해졌다는 사실이다. 『주자가례』는 조선전기 중종대에 율해자 활자를 이용하여 간행이 되었고, 이후 1658년에 함경도 경성부에서도 간행되는 등 보급이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18세기에는 1726년(목판본)과 1759년(무신자 활자본)에 그동안 조선 유학자들이 궁구한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석을 반영한 간행본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18세기 조선 예학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sup>21)</sup>

『주자가례』는 宗法을 토대로 한 가부장적 의례 질서를 규범화 한 책이다. 조선에 도입된 이후 종래에 유지되어 온 조선의 관습이나 실정과 괴리된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은 필연적이었다. 제사, 상장례, 혼례 등 실제 의례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더 논란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조선후기 혼례를 고찰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17세기까지는 『주자가례』에 제시된 親迎 의식이 조선 사회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다가 18세기가 되어서야 『주자가례』를 의식한 조선식 예법으로 변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2)</sup> 또한 조선시대 婚書의 서식도 15세기에는 『國朝五禮儀』에 따른 혼서식이 제시되었다가 17세기를 지나 18세기에는 『주자가례』의 혼례 절차를 반영한 혼서식이 『四禮便覽』에 반영되는 변화를 보였다.<sup>23)</sup>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찰 서식집인 『寒暄筭錄』에서도 발신자나 수신자가 喪人인 경우에는 봉합처에 평소와 달리 서명을 하지 않고, ‘謹封’ 대신 ‘省式謹封’ 등의 문구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sup>24)</sup> 상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예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식이 문서 서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고문서에 기재된 ‘상불착’이라는 표기의 등장도 단순한 서명 방식의 변화로만 언급하고 말 것이 아니라 17~18세기를 경과하면서 강화된 조선 사회의 주자학적 경도 현상, 주자학적 예의식의 공고화 현상과 더불어 분석할 수 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양반가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적용 문제가 구체화 되면서 혼례, 상례, 장례, 제례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에는 일상적으로 거리낌 없이 해왔던 매대 문서 등에 기재하던 서명 방식까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판단에 상중에는 재물의 매대나 증여 등에 대한 문서에는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상중임을 밝히는 문구를 기재하는

학』 46(2014. 11). ; 김명화, “17~19세기 南原 朔寧崔氏家の 祭祀 운영 방식 고찰 - 《先世祭次輪行事目》을 중심으로 -, ” 『고문서연구』 47(2015. 8) 등.

21)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국학연구』 16 (2010. 6), 183-201.

22)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 본전(本傳)을 중심으로 -, ” 『한국고전연구』 13(2006. 6), 5-28. ;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2009. 6), 5-10 등.

23) 김혁, “조선시대 婚書의 書式 변화를 통해서 본 婚禮의 양상,” 『영남학』 13(2008. 6), 513-520.

24) 김효경, “朝鮮時代 簡札 書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176.

것이 예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집안이나 지역별로 이에 동조하는 추세는 있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상중에는 매매 문서 등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서명 방식의 변화 양상은 추상적으로 설명되는 사상적 변화나 관습적 변화보다 더욱 명확하게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실증적인 근거가 된다.

## 5. 결 론

이상에서 조선시대 고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喪人의 서명 방식 변화 양상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단순히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중에는 매매나 분재 문서 등에 서명 대신 ‘상불착’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여겼던 현상을 현재 남아있는 고문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등장 배경을 조선 사회의 유교화,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 종중의 성립과 강화 등 조선후기 사회의 주자학적 사상 강화와 의례의 고착 현상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처럼 고문서를 통한 연구는 개별 문서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개별 문서들이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보여주는 변화상을 살펴보는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고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문서에 적힌 내용 분석을 통해 조선 사회에서의 가계 계승 의식, 분재 양상, 매매 관행, 법 의식, 소송 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문서 기재 방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과거의 제도 변화나 시대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고문서에 나타난 喪人의 ‘喪不着’ 표기도 조선 사회에서 처음부터 상중에는 서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8세기에야 비로소 등장한 현상임을 확인하게 되면서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사상이나 관념의 변화 등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도 시기적 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고문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1~12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2018.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접속일 2019.05.30.]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 本傳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13(2006. 6). 5-28.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2009. 6). 5-30.

김명화. “17~19세기 南原 朔寧崔氏家の 祭祀 운영 방식 고찰 - <先世祭次輪行事目>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7(2015. 8). 53-87.

김문택. “16~17C 安東 眞城李氏家の 族契와 門中조직의 형성과정.” 『고문서연구』 32(2005. 3). 5-38.

김필동.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노종파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7). 31-47.

김혁. “조선시대 婚書의 書式 변화를 통해서 본 婚禮의 양상.” 『영남학』 13(2008. 6). 513-568.

김효경. “朝鮮時代 簡札 書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마르티나 도히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 너머북스, 2013.

박성호. “고문서 牌子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 15(2009. 12). 295-330.

박준호.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서울: 박이정, 2016.

백옥경. “朝鮮 後期 牛峯金氏 가문의 門中形成과 宗契 - 繼全公派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46(2014. 11). 271-310.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국학연구』 16(2010. 6). 183-206.

전경목 외.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유서필지』. 서울: 사계절, 2006.

정승모.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 방식.” 『역사민속학』 23(2006. 12). 61-92.

###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Ok-Kyoung. 2014. “The Forming of Clan and the Jonggye(宗契, family meeting) of

- Ubong Kim's Cl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46: 271-310.
- Chang, Dong-Woo. 2010. "Acceptance and Spreading Process in *Jujagarye*(朱子家禮: Family Rites of Zhu Xi) - Centering on Problem about Manuscript copy in Entering to Korea." *Korean studies*, 16: 183-206.
- Chon, Keong-Mok et al. 2006. *Understanding Old Documents, Yuseopilji*. Seoul: SAGYEOJEOL.
- Chung, Seung-Mo. 2006. "Formation of 'Mun-choong' and managing the 'Mun-choong Kye (契)' in Late Chosun."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23: 61-92.
- Kim, Hyeok. 2008. "The Characteristics of Wedding-ceremony from the Standpoint of the Change of the Wedding -papers(婚書)' formal style in the Joseon Period." *Younghnamhak*, 13: 513-568.
- Kim, Hyo-Gyeong. 2005. *A Study on Form of Letters in Joseon Dynasty*. A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Kyoung-Mi. 2006. "The Acceptance of Jujagarai and Marriages in So Hyun Sung Rok."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13: 5-28.
- Kim, Kyoung-Mi. 2009. "Women's Relationship to Their Parental Home and Their Husbands' Home in the 18th Century of Chosun Dynasty."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19: 5-30.
- Kim, Mun-Taek. 2005. "The Establishment and the Development of Jokgae(族契) and Clan system(門中組織) in the Andong Jinsung Yi Clan through 16C to 17C."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32: 5-38.
- Kim, Myeong-Hwa. 2015. "A Review on the Method to Manage Ancestor Worship Service in Choi Family of Saknyeong in Namwon during the 17th and 19th Centuries -Focusing on Seonsejchayunhaengsamok."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47: 53-87.
- Kim, Pil-Dong. 2009. "The ation of Sajok(士族) Mun-joong in the 17th Century Korea - the case of Nojong-pa(派) lineage of Papyung-Yun Cla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 31-47. Institute of Soci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artina Deuchler, translated by Lee, Hoon-Sang. 2013.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Seoul: NERMERBOOKS.
- Park, Jun-Ho. 2004. *A Study on Signature Form of Korean Old Documents*. A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Park, Jun-Ho. 2016. *Signature and Seal of Old Document*. Seoul: PAGIJONG.

書誌學研究 第78輯(2019. 6)

Park, Sung-Ho. 2009. "A study of Paeja, a type of historical document." *Korean studies*, 15: 295-330.

*Gomunseoipseong*, Vol. 1~123. 1982~2018.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ortal for Archives of Korean Studies. <<http://kostma.aks.ac.kr>>. [date of access 2019.05.30.]